

대중의 변화와 문화예술 팬덤의 정치화 및 정치 팬덤의 관계*

정 병 기**

• 요 약 •

이 글은 ‘대중’을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는 집결한 사람들의 무리’로 정의하고, 팬덤을 문화예술 팬덤, 스포츠 팬덤, 정치 팬덤으로 구분하며, 정치 팬덤을 다시 정치적 팬덤과 구별한다. 정치 팬덤은 ‘특정한 정치적 행위자나 이념 혹은 사건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이나 현상’을 뜻하며, 정치적 팬덤은 정치 팬덤과 정치화한 문화예술·스포츠 팬덤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대중은 1960년대 말을 기점으로 민족·민중·인민·계급에서 계급·시민으로 변했으며, 2000년대에는 다시 시민·다중 및 정동적 다중으로 변하고 있다. 문화예술 팬덤의 정치화는 1990년대에 시작해 2000년대에 가속화되어 정치 팬덤의 발흥과 성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대중의 성격이 이성과 집단적 정체성보다 감성과 개인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정치적 팬덤도 감성과 개인주의가 강해졌다. 현대 정치 팬덤은 다양한 동기와 태도가 공존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 특정 대중 유형과 더 수월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제어 : 대중, 정치 팬덤, 정치적 팬덤, 문화예술 팬덤, 다중

I. 서론

1990년대에 PC가 도입된 후 정보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중의 움직임에서도 팬덤(fandom) 현상이 가속화되어 2000년대 이후에는 ‘팬덤’ 용어의 사용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강국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유사한 시기에 디지털 사회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3 035130).

** 영남대학교

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에 고
유한 현상이었던 팬덤이 정치 영역에서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정치 팬덤 등장의 주된 요인으로는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미디어 발달, 정치의 이미지
화와 감성화 및 인물화, 대중의 성격 변화를 들 수 있다. 그중 대중의 성격 변화는 집단
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강화됨과 동시에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집
단주의도 강화된 현상과 관련된다. 특히 개인주의 강화는 앞의 요인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논리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이 약해짐에 따라 다양한 정서적 요인이 강화
되고, 이 정서적 자극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현대 사회를 양극
화로 몰고 가기도 한다.

이 글은 대중의 변화를 중심으로 팬덤의 정치화와 정치 팬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10여 년 전부터 정치 팬덤은 정치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디어가 고
도로 발달한 환경에서 젊은 층의 새로운 정치 참여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정치학에서 팬
덤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주장¹⁾이나, ‘정치 공동체와 팬 공동체의 정서와
가치 및 행위가 유사하여 팬덤과 정치를 비교할 만하다’는 주장²⁾을 새겨들을 만하다.

하지만 정치 팬덤을 반드시 문화예술 팬덤이나 스포츠 팬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와 열성 지지자들을 ‘팬덤 군대’로 부르는 등 근대
초기에도 정치 팬덤은 존재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³⁾ 다만 정치 팬덤이 문화예술
팬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많은 논자들이 지적해 온 바다. 또한 스포츠 팬덤
과 달리 문화예술 팬덤은 여러 정치 사회 이슈들에 개입하면서 그 자체로 정치화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근대 이후 대중의 변화를 고찰하고, 문화예술 팬덤
의 정치화와 정치 팬덤의 발흥을 대중의 성격 변화와 연결할 것이다.

분석할 주요 문제는 대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것이 팬덤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다.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이 역사적으로 어
떻게 변하고 호명되었는가? 둘째, 대중의 변화가 문화예술 팬덤의 정치화와 어떻게 연결
되는가? 셋째, 대중의 변화가 정치 팬덤의 발흥 및 변화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물론
문화예술 팬덤의 정치화와 정치 팬덤의 발흥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대중의

1) Inthorn, Sanna and John Street, “Simon Cowell for Prime Minister? Young Citizens’ Attitudes towards Celebrity Politics,” *Media, Culture & Society*, vol. 33, no. 3, 2011, pp.479-489.

2) Zoonen, Liesbet van, *Entertaining the Citizen: When Politics and Popular Culture Converg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5.

3) 마이클 본드 지음, 강동혁 옮김, 『팬덤의 시대: 개인과 사회를 움직이는 소속감의 심리학』, 서울: 어크로 스출판그룹, 2023, pp.25-26.

변화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질 뿐 직접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과 함께 살펴본다. 세 질문은 각각 제4, 5, 6장에서 순서대로 다룬다.

세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중과 팬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상세히 검토하고, 팬덤의 복잡한 개념과 유형을 새롭게 정리하고 정의한다. 대중과 팬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연구를 천착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팬덤의 개념과 유형들이 아직 학술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구체적 사례나 특정한 국면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 대중의 역사적 변화와 팬덤의 발흥 및 변화의 관계를 거시적 차원에서 조명해 이 분야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국면이나 구체적 사례는 이론적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II. 대중 연구와 팬덤 연구

개인의 집단행동과 정치 행태 등에 대한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시민이나, 계급, 민중 등 개별적 대중의 모습에 대한 천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시민, 계급, 민중, 다중 등을 아우르는 대중의 종합적·역사적 흐름을 조망한 연구는 아직 없다.

게바우어 & 뤼커(Gebauer und Rücker)가 지적했듯이 “엘리아스 카네티의 『군중과 권력』이 1960년대에 나온 이후로는 근본적이고 새로운 논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르 봉, 타르드, 프로이트, 오르테가의 전통적인 대중 이론들 이후에 발표된 논문은 그들의 명제를 재구성하고, 기껏해야 그것을 새로운 역사적 여건에 맞게 만들었을 뿐이다.”⁴⁾ 이 연구들은 대개 가시적 형태의 집결성에 한정되었다. 르 봉 등의 군중 개념을 비판하며 군중을 ‘일정한 심리 상태’로 규정한 마틴(Martin)의 『군중 행동』⁵⁾도 1920년에 나온 것이며, 역시 가시적 형태의 군중이 갖는 심리에 국한되었다.

한편 핸드폰, PDA,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연대하여 움직이는 현대 군중에 천착해 가시성을 극복한 라인골드(Rheingold)의 『참여 군중』⁶⁾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대중을 잘 분석해냈다, 하지만 그의 연구도 미디어를 통한 ‘참여’의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해 대중의 일반성으로 귀결되지 못했다. 심지어 게바우어와 뤼커가 위의 비판과

4) 군터 게바우어·스벤 뤼커 지음, 엄정용 옮김, 『새로운 대중의 탄생』, 파주: 21세기북스, 2020, p.26.

5) 에버렛 마틴 지음, 김성균 옮김, 『군중행동』, 고양: 까만양, 2012.

6) 하워드 라인골드 지음, 이운경 옮김, 『참여 군중』, 서울: 황금가지, 2003.

함께 내놓은 『새로운 대중의 탄생』조차 대중의 개념을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육체적 행동을 하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는 집결한 무리’라고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포스트(post-)’가 회자하는 이른바 ‘포스트’ 시대의 다원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지 못했다.

‘새로운 개인주의’에 천착한 카림(Charim)의 『나와 타자들』⁷⁾도 현대인의 의식 변화를 잘 짚어낸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중을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네그리 & 하트(Negri & Hardt)⁸⁾의 다중 이론도 대중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라인골드의 미디어 군중을 넘어 지구화 시대 자본과 그에 대항하는 대중을 다중이라는 개념으로 천착해낸 것이다. 하지만 그의 다중 이론은 지구적 자본에 대항하는 다양한 집단들을 추상화하는 것에 머물러 그들의 행동 동기나 의식 변화까지 읽어내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김성일의 『대중의 계보학: 모던 길에서 촛불 소녀까지, 대중 실천의 역사와 새로운 대중의 시대』⁹⁾와 이진경의 『대중과 흐름: 대중과 계급의 정치사회학』¹⁰⁾을 대중 연구서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김성일은 한국의 ‘참여적 군중’이 형성되는 과정을 구조적 분석과 함께 수행했을 뿐 정보화 사회 이후 ‘포스트’ 시대의 정동적 경향 등 새로운 모습을 보지 않았다. 이진경은 대중을 하나의 ‘흐름’으로 다루어 대중 변화의 속성을 잘 간파했으나, 다양한 부문과 현상에 관한 각론적 논의가 대부분이어서 역시 ‘포스트’ 시대의 큰 흐름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밖에 김선옥이나 박의경 등의 경우¹¹⁾처럼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포스트’ 시대의 특성과 연결해 대중의 새로운 모습을 고찰한 연구로는 백옥인과 이재현(2023)의 연구¹²⁾를 들 수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주목해 분인(dividuum)을 논의함으로써 대중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모습에 깊이 천착했으나 대중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거나 팬덤 현상과 연결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격적인 팬덤 연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미디어 문화 연구(studies in media culture)

7) 이줄테 카림 지음, 이승희 옮김, 『나와 타자들』, 서울: 민음사, 2019.

8) Negri, Antonio & Michael Hardt, *Empi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9) 김성일, 『대중의 계보학: 모던 길에서 촛불 소녀까지, 대중 실천의 역사와 새로운 대중의 시대』, 서울: 이매진, 2014.

10) 이진경, 『대중과 흐름: 대중과 계급의 정치사회학』, 서울: 그린비, 2012.

11) 김선옥, “정치에 있어서 대중과 자각적 개인,” 『정치사상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07, pp.183-202; 박의경, “대중에서 시민으로: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1, pp.81-100.

12) 백옥인, “디지털 포퓰리즘 시대의 자동민주주의와 대중,” 『문화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문화연구학회, 2022, pp.5-21; 백옥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3; 이재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사회』, 서울: 컴복스캠퍼스, 2023.

영역에서 출발했다.¹³⁾ 한국에서는 이 연구를 수용해 200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물론 이보다 앞선, 영국 브밍엄(Birmingham) 대학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가 팬덤 연구의 태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화연구는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팬덤 연구가 아니라 대중문화에 대한 포괄적 연구였다.¹⁴⁾ 이 글은 문화예술 팬덤의 정치화를 거쳐 정치 팬덤의 발흥에 초점을 두므로 팬덤 일반에 대한 연구는 젠킨스(Jenkins)가 정리한 세대별 흐름으로 대신하고 정치 팬덤 연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젠킨스는 40여 년 동안 지속된 팬덤 연구를 세 세대로 나누었다.¹⁵⁾ 제1세대는 툴록(Tulloch), 피스크(Fiske), 래드웨이(Radway) 등¹⁶⁾이 대표적이며, ‘연구자는 연구 대상의 외부에 존재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러므로 팬덤을 병리적·일탈적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다만 피스크는 1992년 논문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¹⁷⁾에서 팬덤을 비롯한 대중문화의 전복적 성격을 인정해 제2세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반면, 1990년대 초 젠킨스에서 시작해 베이컨-스미스(Bacon-Smith) 등¹⁸⁾으로 대표되는 제2세대는 팬덤의 전복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실제 팬으로 활동한 학자들이 중심이 된 이 세대는 특히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대자적 의미)를 매스컬처(mass culture: 가치 중립적, 즉자적 의미)와 구분해 팬덤을 대자적 존재로 규정하고 그 정치·사회적 의미를 강화함으로써 중요한 공헌을 했다. 2010년 전후에 형성된 제3세대는 학자이면서 팬덤 활동을 하는 이른바 ‘아카-팬(aca-fan)’으로서 학자

13) 김수정·김수아, “해독 패러다임을 넘어 수행 패러다임으로,” 『한국방송학회』, 제29권 제4호, 한국방송학회, 2015, pp.33-81.

14) 정병기, “〈성덕〉에 나타난 팬덤의 성격과 팬심 변화의 원인: 문화예술 팬덤과 정치 팬덤,”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pp.28-29.

15) 헨리 젠킨스 지음, 정현진 옮김, 『팬, 블로거, 게이머: 참여 문화에 대한 탐색』, 서울: 비즈앤비즈, 2008, pp.22-23.

16) 대표 저서: Tulloch, John, *Watching Television Audience: Cultural Theories and Methods*, London: Arnold, 2000; Fiske, John, *Reading the Popular*, Boston etc.: Unwin Hyman, 1989; Fiske, John,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Boston etc.: Unwin Hyman, 1989; Radway, Janice A., *Reading the Romance: Woma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Chapel Hill, NC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17) Fiske, John,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Lisa Lewis (ed.),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London: Routledge, 1992, pp.30-49.

18) Jenkins, Henry, *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 London: Routledge, 1992; Jenkins, Henry, *Fans, Bloggers and Gamers: Exploring Participatory Cultur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역서: 젠킨스, 『팬, 블로거, 게이머: 참여 문화에 대한 탐색』, 앞의 책]; Jenkins, Henry,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8; Camille Bacon-Smith, *Enterprising Women: Television Fandom and the Creation of Popular Myth*,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의 정체성과 팬의 정체성을 결합한 최근 연구 경향을 주도한다. 켄킨스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장 주목할 만하지만, 제3세대 연구자는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숫자도 많다.

정치 팬덤 연구는 정치의 이미지화와 감성화 및 인물화가 일찍 시작되고 미디어 발달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다. 실제 이 국가들은 정치 팬덤이 가장 발달한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의 또 다른 특징은 대중문화 연구와 문화예술 팬덤 연구가 축적되었고, 그에 따라 정치 팬덤 연구의 학문적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 인물화의 제도적 배경인 다수 대표제와 양당제가 정착해 정치 팬덤 심화의 제도적 요인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정치 팬덤 자체가 2000년대 이후의 현상인 만큼 그에 대한 연구도 아직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로 사례 연구로 축적되어 이론적 토대가 약하며, 이론도 대부분 문화예술 연구에서 빌려 왔다. 특히 대륙 유럽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정치의 인물화와 미디어의 발달이 시작되어 정치 팬덤 연구도 출발 단계에 있다.

외국의 사례 연구로는 에릭슨(Erikson)과 드 코스닉(De Kosnik)의 힐러리(Hillary Clinton) 팬덤 연구,¹⁹⁾ 린하드 등(Reinhard et al)의 트럼프 지지 극우 집단(QAnon) 분석,²⁰⁾ 샌드보스(Sandvoss)의 오바마 팬덤과 영국 자민당 팬덤의 비교 연구²¹⁾ 등이 거론할 만하다. 영국 좌파 정치인에 대한 사례 연구로 시작해 팬덤의 일반성 도출을 시도한 딘(Dean)의 연구들²²⁾도 있다. 또한 켄킨스 & 슈레스토바(Jenkins and Shresthova)와 브라우 & 슈레스토바(Brough and Shresthova)가 팬 행동주의 연구를 통해 팬덤이 정치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²³⁾ 주넌(Zoonen)처럼 팬 연구를 이용해 정치적

19) Erikson, Edward, "Hillary is my Friend": MySpace and Political Fandom," *Rocky Mountain Communication Review*, vol. 4, no. 2, 2008, pp.3-16; De Kosnik, Abigail,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illary Clinton's Marginalized Fandom,"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vol.1, 2008 (DOI: <https://doi.org/10.3983/twc.2008.047>).

20) Reinhard, Carrie Lynn, David Stanley and Linda Howell, "Fans of Q: The Stakes of QAnon's Functioning as Political Fandom,"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66, Issue 8, 2022, pp.1152-1172.

21) Sandvoss, Cornel, "Enthusiasm, Trust and Its Erosion in Mediated Politics: On Fans of Obama and the Liberal Democrat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27, no. 1, 2012, pp.68-81.

22) Dean, Jonathan, "Politicising Fandom,"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no. 2, 2017, pp.408-424; Dean, Jonathan and Phoenix Andrews, "Celebrity from Below: Celebrity, Fandom, and Anti-Fandom in British Politics," *New Political Science*, vol. 43, no. 3, 2021, pp.320-338.

23) Jenkins, Henry and Sangita Shresthova, "Up, Up, and Away! The Power and Potential of Fan Activism," *Journal of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vol. 10, 2012 (<https://doi.org/10.3983/twc.2012.0435>); Brough, Melissa M. and Sangita Shresthova, "Fandom Meets Activism: Rethinking

연대의 모델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²⁴⁾

이와 같이 정치 팬덤 연구는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조차도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단을 제외하면 일반성 도출이나 이론적 논의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젠킨스 등의 경우처럼 정치 팬덤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시도도 없지 않았다. 특히 이 연구들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 팬덤 연구와 정치 팬덤 연구의 학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정치 팬덤 연구도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정치 팬덤 자체가 늦게 시작된 것은 아니며, 대륙 유럽보다는 빠르다. 그에 따라 정치 팬덤 연구도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연구들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등 친노 단체에 대한 정치 집단적 접근이나 정보화 시대 미디어 정치 분석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본격적인 정치 팬덤 연구라기보다 그 맥락을 보인 연구였다. 강원택, 이상근·진영재, 장우영 및 장우영·송경재의 연구가 대표적 예다.²⁵⁾ 그중 장우영과 장우영·송경재의 연구는 정치인 팬클럽의 등장 요인, 조직화 현황, 참여자 구성 분포 및 정당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정치 팬덤 연구를 특화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도 정치 팬덤을 팬덤 연구의 시각이 아니라 유권자 혹은 지지자 집단의 형태로 파악해 기존 선거 연구의 범주에 머문다.

국내의 본격적인 정치 팬덤 연구는 2010년대 이후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 연구한 금혜성·송경재의 논문, 정치 팬덤의 정치 참여 양상을 연구한 송경재의 논문, 문재인 팬덤을 연구한 김정호, 오현철, 성채린·이연호의 연구, 팬덤과 포퓰리즘을 비교한 이승원의 논문, 영화 <변호인>과 <국제시장>을 분석해 정치적 팬덤 정서를 파악한 최배석의 연구, 영화 <성덕>에 나타난 정치 팬덤을 분석한 정병기의 논문, PR 대상으로서 정치 팬덤을 연구한 장현석의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해 한국어와 영어권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김찬우의 논문 등이 있으며,²⁶⁾ 그 밖에 정치 비평 형식의 글이지만 주요 참고문헌으로 삼을 만

Civ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vol. 10, 2012, pp.87-96.

24) Zoonen, op. cit.

25) 강원택, “인터넷 정치 집단의 형성과 참여: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161-184; 이상근·진영재, “한국 정치과정에 나타난 특정 정치인 지원 세력 형성과 정치 참여 과정: ‘친노집단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07, pp.175-211; 장우영·송경재, “정보화 시대의 선거와 유권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2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pp.237-262.

26) 금혜성·송경재,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 팬 커뮤니티 비교연구 - 인터넷 팬덤의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담론201』, 제16권 제3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3, pp.145-169; 송경재,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의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정치 팬클럽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pp.191-217; 김정호, “팬덤공중의 성격에 대한 시론: 검찰개혁 촛불시위에 나타난 문재인 팬

한 박권일, 양기민, 천정환의 글이 있다.²⁷⁾ 국내의 경우는 사례 연구에 한정되거나 팬덤의 비민주적 성격을 둔 논쟁에 초점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2023년에 발표된 연구들은 극단적 팬덤 정치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참여 양상을 연구한 후 긍정적 활용 방안이나 대안 정치를 강구함으로써 정치 팬덤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하지만 정치 팬덤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부족하다. 사례 연구도 더 축적되어야 하며, 일반성에 관한 이론의 정립이 시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접근 방법도 더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대중의 변화와 관련된 팬덤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다만 특정 시기와 대상 및 포폴리즘이나 민주주의와 관련해 진행한 연구는 드물지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상술한 브라우 & 슈레스토바(Brough & Shresthova)가 팬 행동주의의 집단행동 방식(참여 방식)을 연구했고,²⁸⁾ 김정호는 문재인 팬덤을 중심으로 팬덤 공중을 논의했다.²⁹⁾ 대중과 관련된 팬덤 연구는 국내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국에서 팬덤 현상이 매우 활발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승원과 이용호는 팬덤을 포폴리즘과 비교하는 연구³⁰⁾를 내놓았다. 이 두 논문도 포폴리즘을 논했으므로 민주주의 관련 언급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팬덤 정치의 의미를 핵심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조재욱·강진우·김연주의 글³¹⁾이 유일하다.

정치 팬덤을 보는 시각은 초기의 문화예술 팬덤처럼 다양하지만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³²⁾ 지배적 관점은 정치 팬덤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병리적 혹은 일탈적 현상으로

덤을 중심으로,”『시민과 세계』, 통권 제36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0, pp.53-88; 오현철, “문재인 정치 팬덤의 복합적 성격,”『시민사회와 NGO』, 제19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1, pp. 3-38; 성채린·이연호, 2023, “문재인 팬덤 정치 현상과 뉴미디어 플랫폼,”『문화와 정치』, 제10권 제4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pp.105-132; 이승원, “팬덤 정치와 포폴리즘: 대안적 정치문화를 위한 기획,”『문화과학』, 통권 제108호, 문화과학사, 2021, pp.105-124; 최배석, “한국인의 정치적 팬덤 정서와 영화의 수용: 〈변호인〉(2013)과 〈국제시장〉(2014)을 중심으로,”『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4, pp.289-304; 정병기, 앞의 논문; 장현석, “PR에서 정치 팬덤의 활용 방안 연구: ‘K팝 팬덤의 놀이에서 정치 팬덤의 길을 찾다,’”『홍보학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PR학회, 2023, pp.27-51; 김찬우, “근거이론을 통해 본 한국 팬덤정치 연구 동향 분석: 한국과 영어권 학술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국제정치연구』, 제27집 제3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4, pp.207-242.

27) 박권일, “정치 팬덤이라는 증상: ‘문빠’에 대한 철학적 변론,” 비판을 중심으로,”『자음과모음』, 제38호, 2018, pp.189-200; 양기민,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정치,”『문화과학』 통권 제91호, 문화과학사, 2017, pp.222-235; 천정환, “촛불항쟁 이후의 시민정치와 공론장의 변화 - ‘문빠’ 대 ‘한경오’, 팬덤정치와 반지성주의,”『역사비평』 통권 제120호, 역사비평사, 2017, pp.386-406.

28) Brough and Shresthova, op. cit.

29) 김정호, 앞의 논문.

30) 이승원, 앞의 논문; 이용호, “팬덤 정치, 네트워크 포폴리즘인가, 참여의 확장인가?: 한국의 팬덤 정치 사례를 중심으로,”『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제72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pp.5-48.

31) 조재욱·강진우·김연주, “팬덤정치의 민주주의 기제 가능성 검토,”『대한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대한정치학회, 2024, pp.113-136.

보며, 긍정적인 소수 시각은 탈정치화가 심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본다.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팬덤에 대한 연구가 40여 년 동안 일정하게 축적되어 학술적 논의가 정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정치 팬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 팬덤 연구는 초기에 인터넷 효과 연구의 부수적 논의로도 시작되었지만, 최근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은 일정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 팬덤 혹은 팬덤 정치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정치계와 언론에서 부정성에 머물러 있지만, 학계에서는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논란을 극복해 가는 중이다. 하지만 팬덤에 대한 논의가 대중 변화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지 못해 팬덤을 특정 집단의 현상이나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주를 이룬다. 대중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팬덤의 본질을 더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

III. 팬덤의 개념과 유형

‘광신도(fanatic)’의 약칭으로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팬(fan)’ 개념은 100년 후 미국 기자들에 의해 야구 관중의 열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후 다시 영화나 음반 등에서도 열광적인 수용자들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³³⁾ 이어 근대 아날로그 매체가 급격히 확산되는 20세기 초에는 특정한 세부 분야(장르)나 인물 혹은 팀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팬덤(fandom)’ 용어가 등장했다. 열광적 스포츠 관중의 행태를 묘사하는 저널리즘 용어로 사용되거나, 영화와 대중음악 등 문화 산업의 열정적인 수용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수용된 것이다.³⁴⁾ 이윽고 21세기에는 정치 영역에서도 팬덤이 형성되고 연구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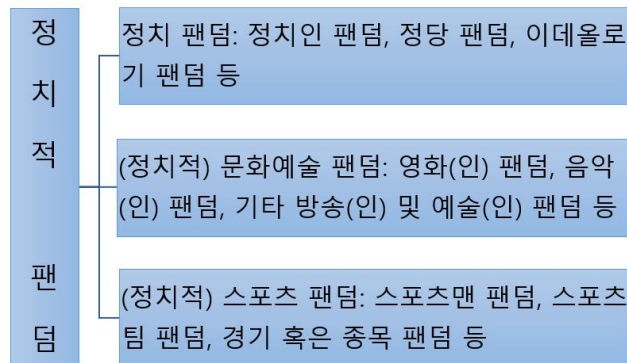
분야에 따라 나누면, 팬덤은 문화예술 팬덤, 스포츠 팬덤, 정치 팬덤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문화예술 팬덤의 대상은 음악, 영화, 방송 등 기타 문화예술 분야의

32) 김정호, 앞의 논문, pp.54-55.

33) Abercrombie, Nicholas and Brian Longhurst, *Audiences: A Sociological Theory of Performance and Imagination*, London: SAGE, 1998, p.122; 마크 더렛 지음, 김수정·곽현자·김수아·박지영 옮김, 『팬덤 이해하기』, 파주: 한울, 2016, p.24.

34) Jenkins, *Textual Poachers...*, op. cit., pp.12-13; 김민형, “팬덤의 수행성 연구 - 인터넷 밈과 시민 참여문화,” 『한국기호학회』, 제66권, 한국기호학회, 2021, p.13에서 재인용.

장르나 인물이고, 스포츠 팬덤의 대상은 특정한 스포츠팀이나 운동선수 혹은 경기나 종목이며, 정치 팬덤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혹은 이데올로기다.³⁵⁾ 현재까지 정치에서 나타난 주요 팬덤은 대개 인물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논리적 의미와 역사적 사례를 따져 보면, 정당이나 이념도 팬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없으면서도 열광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나 이념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이나 최근 독일 대안당(AfD), 프랑스 국민연합(RN) 등의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림 1〉 팬덤 분류

한국에서도 2010년대 들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 현상이 팬덤 현상과 유사하게 나타나 ‘정치 팬덤’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특정 대상에 대해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비슷한 감정을 갖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대상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정치 팬덤’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 팬덤과의 유사성과 과거의 열정적인 정치적 지지자들과의 차별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용어다.³⁶⁾

문화예술 팬덤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거나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정치적 팬덤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한국 방탄소년단(BTS)의 팬덤인 아미(ARMY)가 정치·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와 영국·아일랜드 원디렉션(One Direction)의 팬덤 밴드인 레인보우 디렉션(Rainbow Direction)의 동성애혐오 반대운동이 대표적 사례다(아래 제V장 참조). 스포츠 팬덤도 이

35) 정병기, 앞의 논문, pp.27-28.

36) 김정호, 앞의 논문, p.54.

러한 경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2010년대 스페인에서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한창일 때 명문 축구 클럽인 FC 바르셀로나(FC Barcelona)의 팬덤이 바르셀로나 경기장에서 독립 지지 구호와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며, 2016년 풋볼 선수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이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국가 연주 중 무릎을 꿇은 후 전미 풋볼 리그(NFL) 팬덤 사이에서 ‘무릎 꿇기(Taking a Knee)’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치화한 팬덤(politicized fandom)도 정치적 현상에 포함해, ‘정치적 팬덤’과 ‘정치 팬덤’을 나누어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덤을 둘러싼 정치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팬덤 정치’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치 팬덤(political fandom)’을 ‘특정한 정치적 행위자나 이념 혹은 사건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팬덤(political and politicized fandom)’을 ‘정치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팬덤 혹은 정치화한 문화예술·스포츠 팬덤의 현상이나 그 집단’으로 규정한다. 곧, 정치적 팬덤은 정치 팬덤과 정치화한 문화예술·스포츠 팬덤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리고 팬덤 정치(fandom politics)는 정치적 팬덤과 그 대상 및 이들의 상호 관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IV. 대중의 변화와 호명

대중(mass)의 어원인 고대 그리스어 maza는 빵을 굽기 위한 보릿가루 반죽을 말한다. 그에 따라 여러 학자들은 대중을 집단적·육체적으로 집결한 무리로 간주해 왔다. 새로운 대중의 출현을 주장한 게바우어 & 뢰커(Gebauer & Rücker)에 따르면, 대중은 집결한 사람들의 무리로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육체적 행동을 하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다.³⁷⁾ 이러한 대중 개념의 기준을 많은 연구자들이 수용한다. 그러나 특히 가시적 형태의 집결성과 육체적 행동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인터넷 대중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중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가시적으로 집결하기 전에 이미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면 이미 대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족이

37) 게바우어·뢰커, 앞의 책, pp.28-31. 그 밖에도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변화, 즉흥성, 정서적 반응, 구별 짓기와 상대적 개방성, 폭력성, 양면 가치(폭동성과 해방 지향성)를 필수적인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하 대중 개념에 대해서는 정병기, “현대시조에 나타난 대중의 성격,” 『시조학논총』, 제55집 제2호, 한국시조학회, 2021, 제Ⅲ장과 정병기, 『인공지능과 새로운 개인주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 제3장을 참조.

나 민중, 계급이나 시민 같은 추상적 개념의 무리도 대중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대중은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무리 정도로 이해하며, 그 구체적 모습은 추상적일 수 있음을 가정한다.

가시적 집결의 형태로 간주할 때 대중은 종종 군중과 혼동되는 것도 피해야 할 것 중의 하나다. 대중 연구의 한 획을 그은 카네티(Canetti; 1960년 초판)가 대중을 군중과 구별하지 않고 “군중[대중]은 밀집 상태를 사랑한다.”³⁸⁾고 규정한 것도 그러한 오류의 하나다. 1960년대까지 권위 있는 대중 연구 문헌들이 상재되었지만 대중은 대개 가시적 집결의 양상을 띤 군중과 구별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 의미에 한정되었다. 르 봉(Le Bon; 1895년 초판)과 타르트(Tarde; 1901년 초판)는 대중을 비이성적인 힘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보았고,³⁹⁾ 프로이트(Freud; 1921년 초판)는 지도자와 대중의 관계를 리비도의 관계로 보았으며,⁴⁰⁾ 오르테가 이 가세트(Ortega y Gasset; 1930년 초판)는 대중을 도덕이 없는 존재로 간주했다.⁴¹⁾ ‘고독한 군중’을 설파한 리즈만(Riesman; 1961년 초판)과 독점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동인형처럼 되어가는 일차원적 인간을 경계한 마르쿠제(Marcuse; 1964년 초판) 등에서도 자유를 추구하는 주체적 대중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⁴²⁾

그러나 68혁명운동을 거쳐 인터넷 정보 사회에 도달한 지금은 대중의 주체적 움직임이 여러 양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라인골드(Rheingold)가 대중에게서 대안 미디어를 활성화하고 대항 공공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주체의 모습을 보았으며, 네그리 & 하트(Negri & Hardt)는 지구적 자본에 저항하는 다중(multitude)을 표상해냈다.⁴³⁾ 이후 국내외적으로 주체적 대중의 역능에 대한 기대가 커져 그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었다. 게바우어 & 뢰커(Gebauer & Rücker)의 ‘새로운 대중’에 대한 논의와 카림(Charim)의 ‘제3세대 개인주의’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었다.⁴⁴⁾

대중의 개념을 이와 같은 최근의 현실에 맞게 설정하려면 종래의 엄격한 요건들을 건

38) 엘리야스 카네티 지음, 강두식·박병덕 옮김, 『군중과 권력』, 서울: 바다출판사, 2002, p.37.

39) 귀스타브 르 봉 지음, 이상돈 옮김, 『군중 심리』, 서울: 간디서원, 2005; 가브리엘 타르트 지음, 이상률 옮김, 『여론과 군중』, 서울: 이책, 2015.

40) Freud, Sigmund, *Massenpsychologie und Ich-Analyse. Einleitung von Reimut Riche*, 8. unveränd. Aufl., Frankfurt a. M.: Fischer-Taschenbuch-Verlag, 2007.

41)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지음, 황보영조 옮김, 『대중의 반역』, 서울: 역사비평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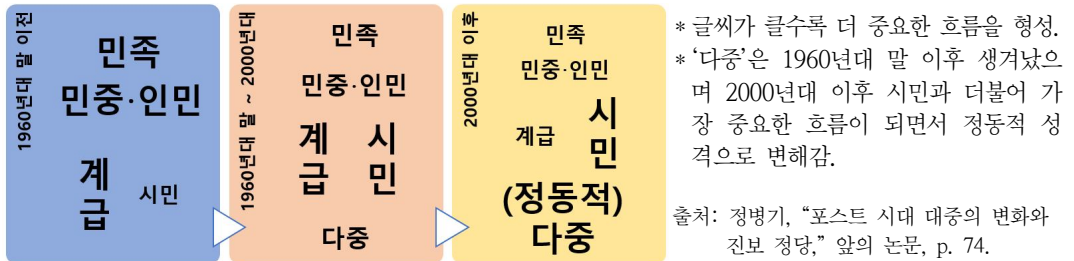
42) 데이비드 리즈먼 지음, 이상률 옮김, 『고독한 군중』, 서울: 문예출판사, 1999;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지음, 차인석 옮김, 『일차원적 인간』, 서울: 삼성출판사, 1983; 윤수중, 『네그리·하트의 「제국」·「다중」·「공통체」 읽기: 제국과 대중 그리고 공통의 부』, 서울: 세창미디어, 2014 p.115.

43) 라인골드, 앞의 책; Negri & Hardt, op. cit.; 조동원,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의 대중 주체의 변화,” 『진보평론』, 제28호, 2006, pp.60-78.

44) 게바우어·뢰커, 앞의 책; 카림, 앞의 책.

어내고 최소주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곧, 대중의 개념을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는 집결한 사람들의 무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⁴⁵⁾ 여기에서 공동의 목표는 추상적 이념의 수준까지 포괄하고, 집결의 양상도 네티즌과 같은 비가시적 양태를 포함한다. 2000년대 한국의 대중도 네트워크 중심적이고 융복합적이며 가상과 실제의 경계를 자유롭게 횡단하는 양상을 보인다.⁴⁶⁾

최소 개념으로 접근할 때, 2차 대전 이후 현대 사회의 대중은 민족, 민중, 계급, 시민, 다중의 양상으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⁴⁷⁾ 이때 대중 개념은 소규모 집단을 배제하지 않지만 한 공동체 내에서 다수를 이루는 무리를 지칭하며, 주로 ‘보통 사람들’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 대중’ 혹은 ‘농민 대중’이라고 할 때, 이 ‘대중’은 ‘노동자’나 ‘농민’이라는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대중’ 개념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다는 요건은 ‘노동자’나 ‘농민’이라는 공동체 내 하위 분류집단으로서의 계층들이 섞여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 호명에서의 대중은 대립하는 존재를 가정한다. 민족은 민족들 간 혹은 제국에 대해 대립하고, 민중은 독재 권력과 대립하며, 계급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민은 정치권력에 대해 참여나 비판의 방식으로 대립하고, 다중은 자본이라는 제국(帝國)에 저항한다.



<그림 2> 대중의 변화

우리나라의 상황은 물론 서구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가 압축적으로 발전해 오는 가운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16/17년까

45) 정병기, “현대시조에 나타난 대중의 성격,” 앞의 논문, p.172; 정병기, 앞의 책, p.25.

46) 김성일, 앞의 책, pp.232-235.

47) 정병기, “포스트 시대 대중의 변화와 진보 정당,” 『희망의 길찾기 - 반동과 퇴행에서 체제 전환으로』, 백기완 선생 3주기 사회대개혁 토론회 자료집, 2024, pp.73-74.

지 진행된 풋볼 집회와 최근 탄핵 국면의 응원봉 집회가 새롭고 주체적인 대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2016/17년 풋볼 집회는 세계 학계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24/25년 응원봉 집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중의 모습도 그에 걸맞게 여러 유형을 거쳐왔다. 우리나라 대중은 민주화 이전에 민족과 민중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2000년대 풋볼 집회 이전까지는 시민과 계급이 중심을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풋볼 집회와 응원봉 집회 등으로 나타나는 다중의 모습을 띠는 한편, 태극기 집회 같은 집단주의적 대중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풋볼 집회와 응원봉 집회에 참가한 대중들은 개인의 다원성을 토대로 탈집단주의 성격을 보이며 플래시몹과 유사한 방식의 행동 양상을 띠어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을 넘어서는다.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 대중은 다양한 방식의 집단행동에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다원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일상생활과 집단행동을 구분하지 않는다. 응원봉 집회를 팬봉 집회라고도 부르듯이 팬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분노 같은 사회적 감정의 전이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데 시간 지체를 두지 않음으로써 정동(affect)적 다중으로서 수행성의 정치 행태를 보인다. ‘정동’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면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정서적 충격’을 뜻한다.⁴⁸⁾ 이 정서적 충격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다중’을 기존의 지배 질서에 저항하거나 성찰적 의식을 가진 무리로 규정한다면, 기존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식을 가진 다른 대중과는 대립한다. 태극기 집회나 탄핵 반대 집회 같은 보수 집회의 대중도 ‘정동적’ 성격을 갖지만 ‘다중’과는 대립한다는 것이다.

V. 대중의 변화와 문화예술 팬덤의 정치화

팬덤의 발생은 개념 형성과 관련된다. 팬덤이 ‘팬(fan)’의 파생어이며, ‘팬(fan)’은 ‘광신도(fanatic)’에 기원을 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본드(Bond)에 따르면, ‘팬(fan)’ 개념의 시작은 1884년 야구 행사 기획자인 테드 설리번(Ted Sullivan)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 처음이며 20세기 초에 일반화되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⁴⁹⁾ 19세기 음악 애호가들의 일기, 스크랩북, 편지를 연구해 온 카비치(Cavicchi)는 팬덤과 관련

48) 정병기, 앞의 책, p.27.

49) 한편 ‘팬(fan)’은 ‘fancy’의 약어로서 18세기에 권투, 비둘기 사육 등에 열성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한 것에서 시작됐다는 입장도 있다. 본드, 앞의 책, p.16, pp.273-274(미주 5).

된 기본적 관행을 스타와의 이상화된 연결, 강렬한 추억과 향수, 물건 수집을 통한 자아 계발 등으로 규정하고 대중 커뮤니케이션 기술보다 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⁰⁾ 스포츠 팬덤과 문화예술 팬덤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팬덤에 가까운 팬클럽의 발생은 1926년 SF 전문 월간지 《어메이징 스토리(Amazing Stories)》의 독자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팬 머거진 혹은 팬진(fanzine)을 발행한 것이라고 한다.⁵¹⁾

대중의 변화는 1960년대 말이 첫 번째 주요 기점이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대중의 주된 호명이 민족·민중·인민·계급에서 계급·시민으로 변했다. 1960년대 말 이전에는 제국주의나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와 민중·인민 운동 혹은 자본 이데올로기가 대중 호명을 결정하는 주요 계기(契機)였다. 정치와 이념은 스포츠나 문화예술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보듯이 문화예술은 정치의 선전 도구로 인식되거나 그 반작용으로 순수 문화예술 운동이 강화되기도 했다. 스포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팬덤은 스포츠와 문화예술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정당론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에서 적극적 지지자나 활동가들은 열성가(dévoť)나 전위(avantgarde)로 불렸다. 그러므로 팬덤의 변화에서 1960년대 말은 주목할 만한 기점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다만 2차 대전 이후 TV가 라디오와 신문을 대체해 가면서 문화예술 팬덤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팬덤이라는 용어보다(이미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팬’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팬덤의 주요 변화가 눈에 띄게 된 시기는 1990년대다. 구글 엔그램 뷰어(Google Books Ngram Viewer)를 활용한 검색 결과에 따르면, 영문 문헌에 기록된 ‘fandom’ 단어의 사용 빈도는 1990년대에 처음으로 현저한 증가를 보이다가(약 100%p) 2000년대에 증가세가 강화된 후(약 150%p) 2010년 이후에는 가파르게 상승한다(2010년 약 230%p에서 2010년 말 약 900%p로).⁵²⁾ 1990년대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가 본격화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소셜미디어를 넘어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소통 공간과 소통 방식이 경이로울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 ‘팬덤’ 용어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90년대 후반이다. 뉴스빅데이터 분석업체 빅카인즈(BIGKinds)가 1990~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

50) Cavicchi, Daniel, “Loving Music: Listeners, Entertainments, and the Origins of Music Fandom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Jonathan Gray, Cornel Sandvoss and Lee Harrington (eds.), *Fandom: Identities and Communities in a Mediated Worl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p.110.

51) 본드, 앞의 책, p.17.

52) 김민형, 앞의 논문, pp.8-9.

내 54개 언론사 기사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팬덤’ 키워드를 포함하는 언론 기사가 2000년 16건, 2010년 287건을 거쳐 2015년에는 1,507건에 이르고, 2020년에는 5,345건으로 크게 확대·누적되었다.⁵³⁾

1990년대 중반은 PC가 도입된 시기다. 팬덤의 발생은 대중 커뮤니케이션 기술보다 앞섰지만, 팬덤의 급성장은 대중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의해 핵심적인 영향을 받았다. 1990년대보다 2010년대에 더욱 급속하게 성장한 것도 PC 발전이 인터넷 발전의 고도화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웹 2.0이 웹 3.0으로 더욱 진화해 갔다. 대중 호명에서도 계급이 약해지고 시민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중이 등장하고, 이 다중은 다시 정동적 성격을 띠어 가고 있다.⁵⁴⁾

이처럼 팬덤의 변화는 대중 커뮤니케이션 발달 및 대중의 변화와 맞물린다. 특히 웹 2.0의 발달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팬덤 내의 소통을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팬덤과 비팬덤 대중과의 소통도 촉진했다. 팬덤이 폐쇄적 단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팬덤에 대해 1980년대에 젠킨스(Jenkins)는 “소외된 하위문화 집단(여성, 청소년, 동성애자 등)이 문화적 관심사를 표출하고자 비틀어 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⁵⁵⁾ 문화예술 팬덤의 사회적 인식이 싹터 확대됐고, 이것이 곧 정치화를 촉발하는 맹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드도 이 시기 이후 문화예술 팬덤을 “주류 문화가 숨 막힌다고 느낄 때 숨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했다.⁵⁶⁾

1990년대에 문화예술 팬덤이 정치화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과 메시지가 사회적 이슈를 다루었고, 그 팬덤이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에서는 여성 록 밴드들과 그 팬덤이 라이엇 걸(Riot Grrrl) 운동을 주도해 여성 인권 운동을 벌였으며, 홍콩에서도 ‘우산 혁명’으로 알려진 민주화 운동에 유명 연예인과 팬덤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드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화를 거친 2000년대 이후의 팬덤은 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⁵⁷⁾ 2015년 보이밴드 원 디렉션(One Direction)이

53) 위의 논문, p.9.

54) 주넌(Zoonen)은 더 나아가 정치와 대중음악, 정치 드라마, 정치인들이 유명인으로서 활동하는 영역을 통해 정치적 지식과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실제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 연예인의 정계 진출이나 수많은 정치 드라마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정치는 항상 대중문화와 결합하고 있다. 주넌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와 정치 사이의 연결이 시민권을 되살리고 시민의 가치를 지지하며 시민의 헌신을 지속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Zoonen, op. cit.

55) Jenkins, Henry, “Star Trek Retrun, Reread, Rewritten: Fan Writing as Textual Poaching,”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vol. 5, no. 2, 1988, p.87.

56) 본드, 앞의 책, p.59.

57) 위의 책, p.59.

레인보우 디렉션(Rainbow Direction: 원 디렉션의 성 수수자 팬들이 동성애 혐오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의 무지개 팔찌를 착용하면서부터 급격히 인지도가 높아졌고 이것이 다시 팬덤과 그 영향력을 더 강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의 하나다.⁵⁸⁾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런 운동의 심리적 원동력이 된다. 이는 계급 이데올로기보다 시민 정체성이 강화된 현상과 관련될 뿐 아니라, 다중 혹은 정동적 다중의 등장과도 관련된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예술 팬덤의 정치적·사회적 참여는 68혁명운동 이후에 생겨난 탈물질주의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문화예술 팬덤이 계급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대 담론적 이슈보다 여성이나 핵 문제 같은 이슈들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과다. 시민 정체성의 강화가 문화예술 팬덤의 정치화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정치 사회적 이슈에 더 민감하고 즉각적 참여 양상을 보이는 다중 혹은 정동적 다중이 등장함으로써 팬덤 구성원들도 유사한 변화 과정을 밟고 있다.

이 변화와 관련해 딘(Dean)은 팬 대상과 팬의 사이나 팬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에 제한되는 일반적 팬덤과 달리 정치화된 팬덤은 사회를 변화하려는 외향적 욕구도 갖는다고 한다.⁵⁹⁾ 특히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 팬덤 정치화의 주요 특징은 정치 사회적 행동의 독자성이다. 팬덤의 정치 사회적 행동이 팬 대상의 정치화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팬덤이 독자적으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반응해 행동하고,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팬 대상의 변화를 유도해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BTS)과 원 디렉션(One Direction)이 좋은 사례다. BLM(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방탄소년단(BTS)이 100만 달러를 기부하자 그 팬덤 아미(ARMY)가 200만 달러를 모금해 기부한 바 있다(이지영 2021, 178-179).⁶⁰⁾ 이 사례에서는 BTS가 먼저 기부를 한 후 팬덤이 움직인 경우다.⁶¹⁾ 하지만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를 비롯한 K-Pop 팬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의 재선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⁶²⁾ 레인보우 디렉션 회

58) Mattia, Bri, "Rainbow Direction and Fan-based Citizenship Performance,"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vol. 28, Special 10th Anniversary Issue (<http://dx.doi.org/10.3983/twc.2018.1414>), 2018.

59) Dean, "Politicising Fandom," op. cit., p.413.

60) 이지영, "‘집단 지성’과 그 저항적 역할을 통해 형성되는 팬덤 정체성: 방탄소년단 아미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3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pp.178-179.

61) 윤지영도 BTS의 노래와 가사가 강한 사회성과 정치성을 띠며 이것이 팬덤에 영향을 주었음을 상세히 분석했다. 윤지영, "사회적 통합의 성장 서사와 닫힌 공동체로서의 팬덤: 방탄소년단(BTS)의 초기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3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pp.213-233.

62) Coscarelli, Joe, "Why Obsessive K-Pop Fans Are Turning Toward Political Activism," *The New York Times* (온라인). (<https://www.nytimes.com/2020/06/22/arts/music/k-pop-fans-trump-politics.html> (검색일: 2025.05.25)).

원들이 먼저 팔찌를 찬 후 원 디렉션이 팔찌를 찬 것도 팬덤이 팬 대상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다. 그 밖에도 팬덤의 성향과 활동이 팬 대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른 여러 곳에서 보고된다. 이를 두고 딘은 “지금까지 정치적이진 않았던 팬 커뮤니티도 더 넓은 사회적 관계에 도전하고 개입하려고 할 때 정치화될 수 있다.”⁶³⁾고 정리했다.

Ⅵ. 대중의 변화와 정치 팬덤의 발흥 및 변화

문화예술 팬덤의 정치화는 정치 팬덤의 발생과도 관련된다. 두 현상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다만 동일한 시기에 두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들이 대중 커뮤니케이션 발달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대중의 변화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문화예술 팬덤이 먼저 형성되고, 대중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치가 팬덤 현상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상술했듯이 정치 팬덤의 발생은 미디어의 발달과 대중의 성격 변화 외에 정치의 이미지화 및 감성화와 인물화에 기인한다. 정치의 이미지화와 감성화는 정치 팬덤이 가장 먼저 등장한 미국에서 정치인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연예계와 스포츠계 유명 인사를 육성하는 시스템과 비슷해진 것이 시작이다.⁶⁴⁾ ‘가십 저널리즘과 토크쇼가 확산해 대중매체가 매개하는 정치인의 자기 표출 과정’이 변했고,⁶⁵⁾ 그에 따라 정치인의 성격이나 자질보다 이미지가 중요해진 것이다.⁶⁶⁾ 버지니아공과대학교(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연구자들은 2018년 발표한 논문에서 스포츠 팬과 정치 지지자들은 팀이나 정당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바 있다.⁶⁷⁾ 정치 지지자들도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렌즈를 통해 정보를 걸러낸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와 지지자의 관계도 갈수록 스포츠·문화예술인과 팬덤의 관계를 닮아간다는 증거다.

정치 팬덤과 관련된 정치인의 인물화는 정치인의 의도와 팬덤의 희망이 결합해 정치인

63) Dean, “Politicising Fandom,” op. cit., p.415.

64) 오현철, 앞의 논문, p.8.

65) 그레엄 터너 지음, 권오현·심성보·정수남 옮김, 『셀러브리티』, 서울: 이매진, 2018.

66) Marshall, P. David, “Persona Studies: Mapping the Proliferation of the Public Self,” *Journalism*, vol. 15, no. 2, 2014, pp.153-154.

67) Mirer, Michael, Megan Duncan and Michael Wagner, “Taking It from the Team: Assessments of Bias and Credibility in Team-Operated Sports Media,” *Newspaper Research Journal*, vol. 39, no. 4, 2018 (DOI: 10.1177/0739532918806890); 본드, 앞의 책, p.24.

의 페르소나가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페르소나는 정치인의 실제 모습과 다르며 팬덤(집단)에서 아바타 같은 생명력을 얻게 된다.⁶⁸⁾ 이 페르소나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는 결국 그 정치인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특징에 의해 작동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아버크롬비 & 롱허스트(Abercrombie & Longhurst)는 정치 팬덤과 관련해 팬(fans)과 추종자(cultists), 열광자(enthusiasts)를 구분한다.⁶⁹⁾ 팬은 문화예술에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스타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정치 영역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투표자를 의미한다. 추종자는 팬보다 더 조직적이어서 서로 만나고 네트워크의 노드(node)를 구성하는 전문 자료를 배포한다. 정치 영역에서 이들은 정당의 당원과 유사하다. 반면 열광자는 미디어나 스타보다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데, 다양한 국가 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 대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현대 정치의 팬덤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팬’이라는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해 팬덤과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에서는 팬을 정치의 인물화 현상에 국한할 위험이 있다. 세 집단이 팬덤의 하위 유형임을 분명히 하고 인물화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팬덤 현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원택, 이상근·진영재, 김정호가 ‘노사모’ 등을 연구해 팬덤이 지지 정치인을 통하여 특정한 사회적 가치나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⁷⁰⁾ 조국현도 정치 팬덤을 팬들의 참여 강도에 따라 ‘리더 숭배적 팬덤’과 ‘결사체적 팬덤’으로 구분한다.⁷¹⁾ 지지 정치인의 정보 교환 등 열정과 충성심을 중시하는 ‘리더 숭배적 팬덤’과 달리 ‘노사모’,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문재인 팬덤 등으로 거론되는 ‘결사체적 팬덤’은 지지 정치인을 통해 적극적인 정치·사회적 목표 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발전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등장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개인의 정보 접근성과 자율적 행동을 촉진했고, 이것이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확보한 정보에 기반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회를 확대했다.⁷²⁾ 이를 통해 정치인과 유권자의 직접 소통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정치 팬덤의 조성 기회도 확대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68) Anderson, Karrin Vasby and Kristina Horn Sheeler, “Texts (and Tweets) from Hillary: Meta-meming and Postfeminist Political Culture,”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 2, 2014, p.228.

69) Abercrombie and Longhurst, op. cit, pp.138-139.

70) 강원택, 앞의 논문; 이상근·진영재, 앞의 논문; 김정호, 앞의 논문.

71) 조국현, “정치인 팬 커뮤니티 분석 - ‘박사모’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제31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1, pp.279-309.

72) 금혜성·송경재, 앞의 논문, p.148.

통해 증명되고 주장되었다.

금혜성·송경재는 미디어 발달을 기준으로 정치 팬덤의 발전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⁷³⁾ 제1기는 1990~2000년대 초반에 걸치며 인터넷 기반 정치 커뮤니티의 형성 단계다. 199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인터넷을 거점으로 유명인에 대한 팬클럽, 다양한 취미 활동을 위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정치 팬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정치 팬덤으로는 미국의 보수 언론인 림보(Rush Hudson Limbaugh III)의 보수주의 팬덤, 한국의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정치 토론방 등이 꼽힌다. 제2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인데, 제1기 이후에서 시작해 SNS가 활성화되기 직전에 이르는 시기다. 정치적 팬클럽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고, 대중의 정치 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었다고 한다. 노사모와 박사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제3기는 SNS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8년 이후다. 웹 2.0의 등장에 힘입어 팟캐스트 등 개인 방송이 가능해진 것이 주요 요인이다. ‘나꼼수(나는 꼼수다)’를 대표적 사례로 하는 제3기의 특징은 정치 팬덤의 대상이 비정치인으로까지 급속히 확산한 것이다.

대중의 성격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성과 집단적 정체성보다 감성과 개인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중의 성격이 변해가는 한편, 그에 대한 저항도 강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2000년대 이후의 대중은 논리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이 약해지면서 다원적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한편, 그에 대한 반작용이나 집단적 정체성 같은 과거 경향과 혼합되어 인물이나 이미지에 집단적 정체성을 투영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오현철은 논리, 이념, 정책보다 감성적 요인이 좌우하는 이미지에 따라 정치 셀럽에게 매료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한다.⁷⁴⁾ 결사체 팬덤의 경우에도 결사체 팬십의 토대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거대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에 놓인 것이 아니다. 이 시기의 대중은 시민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더 작은 이슈와 정책들로 세분되어 더 강한 개인주의적 성격을 띠는 다중이며, 특히 젊은 층은 정동적 다중의 성격을 보인다.

이용호는 이재명 팬덤도 리더 숭배적 팬덤에서 출발했지만 결사체적 팬덤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한다.⁷⁵⁾ 하지만 ‘부족주의적 팬덤’으로 새롭게 명명하는데, ‘부족주의적 팬덤’은 ‘리더 숭배적 팬덤’에 가까우면서도 구체적으로는 훨씬 더 공동체주의적이라고 한다. ‘부족’(部族, tribe)은 추아(Chua)가 제시한 ‘정치적 부족(political tribe)’⁷⁶⁾ 개념을 따른

73) 위의 논문 pp.148-150.

74) 오현철, 앞의 논문, p.8.

75) 이용호, 앞의 논문, p.13, 29, pp.32-33.

76) 에이미 추아 지음, 김승진 옮김, 『정치적 부족주의: 집단 본능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서울: 부키, 2020.

것인데, 집단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피해자로 여겨 쉽게 위협을 느끼며 편협하고 가혹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⁷⁷⁾ 그러나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이재명 팬덤의 경우 피해자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거대 담론 혹은 이데올로기는 아니지만 특정 이슈나 정책과 관련된 개혁을 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동기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의 팬덤 유형이 모두 새로운 유형으로 대체되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유형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비중이 줄어들고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 점차 주요 유형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 팬덤의 구분은 더핏(Duffett)이 문화예술 팬덤에 적용한 다섯 가지 구분이 적절하다.⁷⁸⁾ 이 유형 구분을 정치 팬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정동적 다중의 팬덤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동적 팬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더핏에 따르면 팬덤은 취미, 동일시, 실존, 실천, 공동체적 정체성과 수행이라는 다섯 가지 동기 및 태도에 따라 구분된다. 이를 정치 팬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미로서의 팬덤은 말 그대로 정치 활동을 취미 생활로 즐기는 팬덤이다. ‘취미로서의 정치 팬덤’은 적극적 팬덤이 아니어서 모든 유형의 대중과 결합할 수 있지만, 주로 개인주의적 성향과 어울리므로 시민이나 정동적 다중과 상대적으로 더 쉽게 결합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일시 팬덤은 남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팬 대상인 지지 정치인과 맺는 관계의 토대를 동일시나 투여라는 정서적 과정에 둔다. 이들의 행동은 긍정적이며 즉각적이다. 셋째, 실존적 팬덤은 팬 대상에 대해 정서적 확신을 가짐으로써 팬덤이 존재의 과정이자 방식이 된다. 동일시 팬덤보다 더욱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투영한다. ‘동일시 정치 팬덤’과 ‘실존적 정치 팬덤’은 지지 정치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투영하므로 거대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성이 강한 집단주의적 대중과 어울린다.

넷째, 실천으로서의 팬덤은 특정한 정치적 서사나 텍스트에 정서적으로 꾸준히 관여하는 개인적·집단적 태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다섯째, 공동체적 정체성과 수행으로서의 팬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대조함으로써 공동체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수행(performance)을 통해 행동을 가시화한다. 지지 정치인과 팬덤 소속이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의 기준이 되지만, 이 정체성은 동일시와 달리 비교를 통해 형성된다. ‘공동체적 정체성과 수행으로서의 정치 팬덤’과 ‘실천으로서의 정치 팬덤’은 개인주의적·집단주의적 대중과 모두 결합할 수 있어 대중과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띤다. 다만 집단주

77) 이소영, “미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치적 부족주의,” 『대한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20, pp.1-27.

78) 더핏, 앞의 책, pp.52-62.

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해 시민적 정체성과 더 수월하게 결합한다.

더핏의 유형에 추가한 여섯 번째 유형인 정동적 팬덤은 개인이 분인(dividuum)⁷⁹⁾으로 분할되는 포스트개인주의 시대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이다. 정동은 ‘감정의 가능성 전체를 이끄는 메타-감정’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효과의 영역’에 속한다.⁸⁰⁾ 주넨(Zoonen)은 문화예술 팬덤과 유권자를 비교하면서 ‘정동적 지능(affective intelligence)’을 중요한 유사점으로 꼽았다.⁸¹⁾ ‘정동적 지능’은 정치적 참여와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문화예술 분야의 정치적 표현이 ‘정동적 지능’을 자극하듯이 정치 영역 내부에서도 이를 기대하는 의도적 행위가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정동적 정치 팬덤에서도 정동이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표출될 경우에는 다중과 결합하지만, 집단적 성향을 띠는 경우에는 보수적 집단주의와 결합할 수 있다.

VII. 결론

이 글은 대중과 팬덤의 개념을 정리 및 정의하고 대중의 변화에 맞춰 정치적 팬덤의 형성과 변화를 고찰했다. ‘대중’ 개념은 최소주의를 적용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는 집결한 사람들의 무리”로 규정했다. 이 ‘대중’은 소규모 집단을 배제하지 않지만 한 공동체 내에서 다수를 이루는 무리를 지칭하며 대립하는 존재를 가정한 다. 2차 대전 이후 현대 사회의 대중은 민족, 민중, 계급, 시민, 다중의 양상으로 변해왔다. 민족은 민족들 간 혹은 제국과, 민중은 독재 권력과 대립하며, 계급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시민은 정치권력에 대립하고, 다중은 자본이라는 제국(帝國)에 저항하며, 최근에는 집단주의적인 정동적 대중과도 대립한다.

팬덤은 문화예술 팬덤, 스포츠 팬덤, 정치 팬덤으로 구분했으며, 정치 팬덤은 정치적 팬덤과 구별했다. 이 글에서 정치 팬덤은 ‘특정한 정치적 행위자나 이념 혹은 사건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이나 현상’으로 특정했다. 반면 정치적 팬덤은 정치 팬덤과 정치화한 문화예술·스포츠 팬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정치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팬덤 혹은

79) Deleuze, Gilles,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trans. by M. Joughin, *October*, vol. 59, 1992, pp.3-7.

80) Hills, Matt, *Fan Cultures*, London: Routledge, 2002, p.91; 더핏, 앞의 책, p.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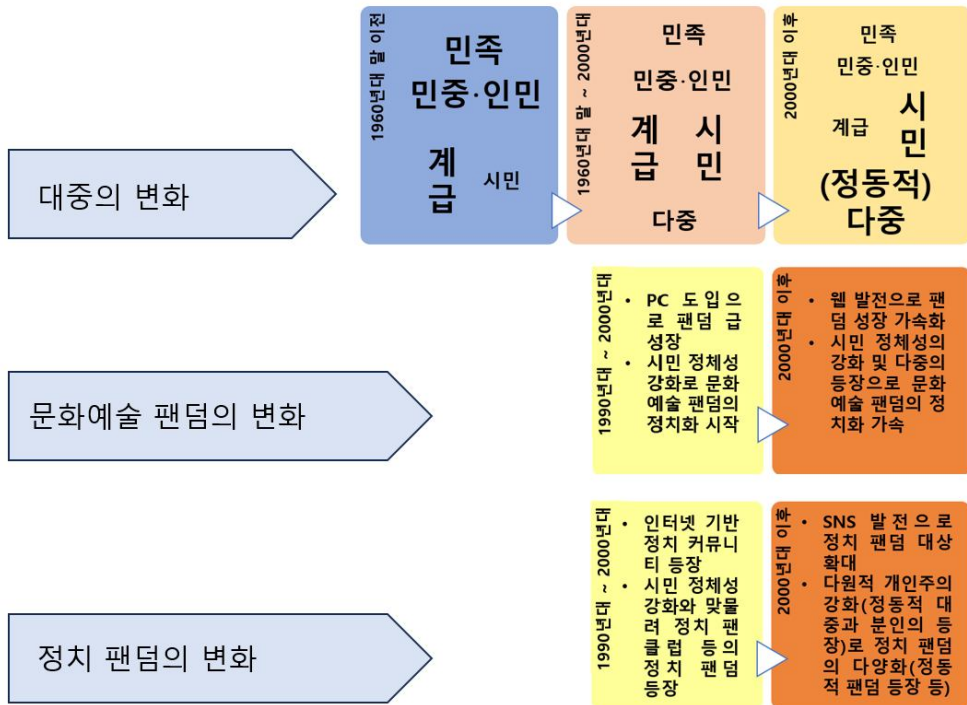
81) Zoonen, Liesbet van, “Imagining the Fan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9, no. 1, 2004, pp.39-52.

은 정치화한 문화예술·스포츠 팬덤을 보이는 현상이나 그 집단'으로 규정했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의 호명은 1960년대 말을 기점으로 민족·민중·인민·계급에서 계급과 시민으로 변했다. 1960년대 말 이전에 스포츠와 문화예술은 정치의 선전 도구로 인식되거나 그 반작용으로 순수 스포츠 혹은 순수 문화예술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와 달리 팬덤 현상에서는 1960년대 말이 변화의 주요 기점은 아니었다. 팬덤의 주요 변화는 PC가 도입된 1990년대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에는 웹 2.0이 웹 3.0으로 진화해 감으로써 더욱 가속화되었다. 거대 담론과 이데올로기가 더 약해지고 시민 호명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중이 등장해 정동적 성격을 띠어 가는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미디어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화예술 부문에서 팬덤의 정치화가 나타나 강화되기 시작했다(〈그림 3〉 참조).

정치 팬덤의 발생도 미디어의 발달 및 대중의 성격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미디어 발달로 인한 정치의 이미지화 및 감성화와 인물화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정치인은 성격이나 자질보다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가 중요해짐으로써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가 (스포츠·)연예인과 팬덤의 관계를 닮아간 것이다. 대중의 성격에서도 이성적 집단적 정체성보다 감성과 개인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한편, 그에 대한 저항도 강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곧, 2000년대 이후의 대중은 논리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이 약해지면서 다원적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한편, 그에 대한 반작용이나 집단적 정체성 같은 과거 경향과 혼합되어 인물이나 이미지에 집단적 정체성을 투영하기도 한다.

문화예술 팬덤이나 스포츠 팬덤과 마찬가지로 정치 팬덤도 취미, 동일시, 실존, 실천, 공동체적 정체성과 수행, 정동이라는 여섯 가지 동기 및 태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정치 활동을 취미 생활로 즐기는 '취미로서의 정치 팬덤'이 가장 소극적 유형으로 존재한다. '동일시 정치 팬덤'은 팬 대상인 지지 정치인과 맺는 관계를 동일시나 투여라는 정서적 과정에 기반을 두며, '실존적 정치 팬덤'은 팬 대상에 대해 정서적 확신을 가지고 팬덤을 자신의 존재 과정이자 존재 방식으로 인식한다. '실천으로서의 정치 팬덤'은 특정한 정치적 서사나 텍스트에 정서적으로 꾸준히 관여하는 개인적·집단적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며, '공동체적 정체성과 수행으로서의 정치 팬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대조함으로써 공동체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수행(performance)으로 행동을 표출한다. 한편 개인의 정서적 충격이 즉각적 사회 행동으로 전이되는 '정동적 정치 팬덤'도 생겨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대중의 변화와 문화예술 팬덤 및 정치 팬덤의 변화

2000년대 이후 현대 사회의 정치 팬덤은 여섯 가지 유형이 공존하며 대중의 유형이나 특정 집단과 더 수월하게 결합한다. 거대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성이 강한 집단주의적 대중은 주로 동일시 팬덤과 실존적 팬덤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68혁명운동의 영향을 받은 탈물질주의 세대와 시민적 정체성을 가진 대중은 ‘실천으로서의 팬덤’ 및 ‘공동체적 정체성과 수행으로서의 팬덤’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짙다. 반면 새로운 개인주의에 기반한 정동적 정치 팬덤은 2000년대 이후에 발흥해 다중과 결합한다.

대중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주류 집단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정치 사회적 조건과 국면에서 특정 팬덤 유형이 특정 대중과 더 강하게 결합한다. 이 글은 그 특정한 조건과 국면을 고찰하지는 못했으며, 정치 팬덤의 형성 및 변화와 대중 변화의 구체적 인과 관계도 추적하지 못했다. 거시적 시각과 메타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만족했다. 남은 주제들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분석·보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가브리엘 타르드 지음, 이상률 옮김, 『여론과 군중』, 서울: 이책, 2015.
- 강원택, “인터넷 정치 집단의 형성과 참여: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161-184.
- 군터 게바우어·스벤 뤼커 지음, 엄정용 옮김, 『새로운 대중의 탄생』, 파주: 21세기북스, 2020.
- 귀스타브 르 봉 지음, 이상돈 옮김, 『군중 심리』, 서울: 간디서원, 2005.
- 그레엄 터너 지음, 권오현·심성보·정수남 옮김, 『셀러브리티』, 서울: 이매진, 2018.
- 금혜성·송경재,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 팬 커뮤니티 비교연구 - 인터넷 팬덤의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담론201』, 제16권 제3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3, pp.145-169.
- 김민형, “팬덤의 수행성 연구 - 인터넷 밈과 시민 참여문화,” 『한국기호학회』, 제66권, 한국기호학회, 2021, pp.7-36.
- 김선옥, “정치에 있어서 대중과 자각적 개인,” 『정치사상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07, pp.183-202.
- 김성일, 『대중의 계보학: 모던 길에서 촛불 소녀까지, 대중 실천의 역사와 새로운 대중의 시대』, 서울: 이매진, 2014.
- 김수정·김수아, “해독 패러다임을 넘어 수행 패러다임으로,” 『한국방송학회』, 제29권, 제4호, 한국방송학회, 2015, pp.33-81.
- 김정호, “팬덤공중의 성격에 대한 시론: 검찰개혁 촛불시위에 나타난 문제인 팬덤을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통권 제36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0, pp.53-88.
- 김찬우, “근거이론을 통해 본 한국 팬덤정치 연구 동향 분석: 한국과 영어권 학술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7집 제3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4, pp.207-242.
- 데이비드 리스먼 지음, 이상률 옮김, 『고독한 군중』, 서울: 문예출판사, 1999.
- 마이클 본드 지음, 강동혁 옮김, 『팬덤의 시대: 개인과 사회를 움직이는 소속감의 심리학』, 서울: 에크로스출판그룹, 2023.
- 마크 더핏 지음, 김수정·곽현자·김수아·박지영 옮김, 『팬덤 이해하기』, 파주: 한울, 2016.
- 박권일, “정치 팬덤이라는 증상: 「문빠에 대한 철학적 변론」 비판을 중심으로,” 『자음과모음』, 제38호, 2018, 189-200.
- 박의경, “대중에서 시민으로: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1, pp.81-100.
- 백옥인, “디지털 포퓰리즘 시대의 자동민주주의와 대중,” 『문화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문화연구학회, 2022, pp.5-21.
- 백옥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3.
- 성채린·이연호, “문제인 팬덤 정치 현상과 뉴미디어 플랫폼,” 『문화와 정치』, 제10권 제4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3, pp.105-132.
- 송경재,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의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정치 팬클럽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제3호, 경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23, pp.191-217.
- 양기민, “문제인 정부의 이미지/정치,” 『문화과학』 통권 제91호, 문화과학사, 2017, pp.222-235.
- 에버렛 마틴 지음, 김성균 옮김, 『군중행동』, 고양: 까만양, 2012.
- 에이미 추아 지음, 김승진 옮김, 『정치적 부족주의: 집단 본능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서

- 울: 부키, 2020.
- 엘리아스 카네티 지음, 강두식·박병덕 옮김, 『군중과 권력』, 서울: 바다출판사, 2002.
- 오현철, “문재인 정치 팬덤의 복합적 성격,” 『시민사회와 NGO』, 제19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1, pp.3-38.
- 윤수중, 『네그리·하트의 「제국」·「다중」·「공통체」 읽기: 제국과 대중 그리고 공통의 부』, 서울: 세창미디어, 2014.
- 윤지영, “사회적 통합의 성장 서사와 닫힌 공동체로서의 팬덤: 방탄소년단(BTS)의 초기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3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pp.213-233.
- 이상근·진영재, “한국 정치과정에 나타난 특정 정치인 지원세력 형성과 정치 참여 과정: ‘친노집단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07, pp.175-211.
- 이소영, “미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치적 부족주의,” 『대한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20, pp.1-27.
- 이승원, “팬덤 정치와 포폴리즘: 대안적 정치문화를 위한 기획,” 『문화과학』 통권 제108호, 문화과학사, 2021, pp.105-124.
- 이용호, “팬덤 정치, 네트워크 포폴리즘인가, 참여의 확장인가?: 한국의 팬덤 정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제72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pp.5-48.
- 이재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사회』, 서울: 컴북스캠퍼스, 2023.
- 이줄테 카림 지음, 이승희 옮김, 『나와 타자들』, 서울: 민음사, 2019.
- 이지영, “‘집단 지성’과 그 저항적 역할을 통해 형성되는 팬덤 정체성: 방탄소년단 아미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3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pp.171-188.
- 이진경, 『대중과 흐름: 대중과 계급의 정치사회학』, 서울: 그린비, 2012.
- 장우영, “ICTs와 정당의 적응 - 정치인 팬클럽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7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pp.95-119.
- 장우영·송경재, “정보화 시대의 선거와 유권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 통권 제22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pp.237-262.
- 장현석, “PR에서 정치 팬덤의 활용 방안 연구: ‘K팝 팬덤의 놀이에서 정치 팬덤의 길을 찾다,’” 『홍보학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PR학회, 2023, pp.27-51.
- 정병기, “현대시조에 나타난 대중의 성격,” 『시조학논총』, 제55집 제2호, 한국시조학회, 2021, pp.167-192.
- 정병기, “〈성덕〉에 나타난 팬덤의 성격과 팬심 변화의 원인: 문화예술 팬덤과 정치 팬덤,”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pp.25-48.
- 정병기, “포스트 시대 대중의 변화와 진보 정당,” 『희망의 길찾기 - 반동과 퇴행에서 체제 전환으로』, 백기완 선생 3주기 사회대개혁 토론회 자료집, 2024, pp.72-84.
- 정병기, 『인공지능과 새로운 개인주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
- 조국현, “정치인 팬 커뮤니티 분석 - ‘박사모’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제31권(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1, pp.279-309.
- 조동원,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의 대중 주체의 변화,” 『진보평론』, 제28호, 2006, 60-78.
- 조재욱·강진우·김연주, “팬덤정치의 민주주의 기제 가능성 검토,” 『대한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대한정치학회, 2024, pp.113-136.

- 천정환, “촛불항쟁 이후의 시민정치와 공론장의 변화 - ‘문빠’ 대 ‘한경오’, 팬덤정치와 반지성주의,” 『역사비평』, 통권 제120호, 역사비평사, 2017, pp.386-406.
- 최배석, “한국인의 정치적 팬덤 정서와 영화의 수용: <변호인>(2013)과 <국제시장>(2014)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4, pp.289-304.
- 하워드 라인골드 지음, 이운경 옮김, 『참여 군중』, 서울: 황금가지, 2003.
-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지음, 차인석 옮김, 『일차원적 인간』, 서울: 삼성출판사, 1983.
- 헨리 젠킨스 지음, 정현진 옮김, 『팬, 블로거, 게이머: 참여 문화에 대한 탐색』, 서울: 비즈앤비즈, 2008.
-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지음, 황보영조 옮김, 『대중의 반역』, 서울: 역사비평사, 2005.
- Abercrombie, Nicholas and Brian Longhurst, *Audiences: A Sociological Theory of Performance and Imagination*, London: SAGE, 1998.
- Anderson, Karrin Vasby and Kristina Horn Sheeler, “Texts (and Tweets) from Hillary: Meta-meming and Postfeminist Political Culture,”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 2, 2014, pp.224-243.
- Brough, Melissa M. and Sangita Shresthova, “Fandom Meets Activism: Rethinking Civ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vol. 10, 2012, pp.87-96.
- Camille Bacon-Smith, *Enterprising Women: Television Fandom and the Creation of Popular Myth*,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 Cavicchi, Daniel, “Loving Music: Listeners, Entertainments, and the Origins of Music Fandom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Jonathan Gray, Cornel Sandvoss and Lee Harrington (eds.), *Fandom: Identities and Communities in a Mediated Worl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pp. 109-126.
- Coscarelli, Joe, “Why Obsessive K-Pop Fans Are Turning Toward Political Activism,” *The New York Times* (온라인), <https://www.nytimes.com/2020/06/22/arts/music/k-pop-fans-trump-politics.html> (검색일: 2025.05.25).
- De Kosnik, Abigail,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illary Clinton's Marginalized Fandom,”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vol. 1, 2008 (DOI: <https://doi.org/10.3983/twc.2008.047>).
- Dean, Jonathan and Phoenix Andrews, “Celebritization from Below: Celebrity, Fandom, and Anti-Fandom in British Politics,” *New Political Science*, vol. 43, no. 3, 2021, pp.320-338.
- Dean, Jonathan, “Politicising Fandom,”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no. 2, 2017, pp.408-424.
- Deleuze, Gilles,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trans. by M. Joughin, *October*, vol. 59, 1992, pp.3-7.
- Erikson, Edward, ““Hillary is my Friend”: MySpace and Political Fandom,” *Rocky Mountain Communication Review*, vol. 4, no. 2, 2008, pp.3-16.
- Fiske, John, *Reading the Popular*, Boston etc.: Unwin Hyman, 1989.
- Fiske, John,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Boston etc.: Unwin Hyman, 1989.
- Fiske, John,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Lisa Lewis (ed.),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London: Routledge, 1992, pp.30-49.

- Freud, Sigmund, *Massenpsychologie und Ich-Analyse. Einleitung von Reimut Riche*. 8. unveränd. Aufl., Frankfurt a. M.: Fischer-Taschenbuch-Verlag, 2007.
- Hills, Matt, *Fan Cultures*, London: Routledge, 2002.
- Inthorn, Sanna and John Street, "Simon Cowell for Prime Minister? Young Citizens' Attitudes towards Celebrity Politics," *Media, Culture & Society*, vol. 33, no. 3, 2011, pp.479-489.
- Jenkins, Henry, "Star Trek Retrun, Reread, Rewritten: Fan Writing as Textual Poaching,"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vol. 5, no. 2, 1988, pp.85-107.
- Jenkins, Henry, *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 London: Routledge, 1992.
- Jenkins, Henry, *Fans, Bloggers and Gamers: Exploring Participatory Cultur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 Jenkins, Henry,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8.
- Jenkins, Henry and Sangita Shresthova, "Up, Up, and Away! The Power and Potential of Fan Activism," *Journal of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vol. 10, 2012 (<https://doi.org/10.3983/twc.2012.0435>).
- Marshall, P. David, "Persona Studies: Mapping the Proliferation of the Public Self," *Journalism*, vol. 15, no. 2, 2014, pp.153-170.
- Mattia, Bri, "Rainbow Direction and Fan-based Citizenship Performance,"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vol.28, Special 10th Anniversary Issue, 2018 (<http://dx.doi.org/10.3983/twc.2018.1414>).
- Mirer, Michael, Megan Duncan and Michael Wagner, "Taking It from the Team: Assessments of Bias and Credibility in Team-Operated Sports Media," *Newspaper Research Journal*, vol. 39, no. 4, 2018 (DOI: 10.1177/0739532918806890).
- Negri, Antonio & Michael Hardt, *Empi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Radway, Janice A., *Reading the Romance: Woma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Chapel Hill, NC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 Reinhard, Carrie Lynn, David Stanley and Linda Howell, "Fans of Q: The Stakes of QAnon's Functioning as Political Fandom,"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66, Issue 8, 2022, pp.1152-1172.
- Sandvoss, Cornel "Enthusiasm, Trust and Its Erosion in Mediated Politics: On Fans of Obama and the Liberal Democrat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27, no. 1, 2012, pp. 68-81.
- Tulloch, John, *Watching Television Audience: Cultural Theories and Methods*, London: Arnold, 2000.
- Zoonen, Liesbet van, "Imagining the Fan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9, no. 1, 2004, pp.39-52.
- Zoonen, Liesbet van, *Entertaining the Citizen: When Politics and Popular Culture Converg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5.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Mass, the Politiciz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Fandom and the political Fandom

Jung, Byungkee

This article defines “the mass” as “a group of people gathered from various strata aiming for a common goal.” It categorizes fandom into cultural and artistic fandom, sports fandom, and political fandom, while distinguishing political fandom further from “political and politicized fandom”. Political fandom refers to “a group or phenomenon that enthusiastically favors a specific political actor, ideology, or event.” In contrast, “political and politicized fandom” encompasses both political fandom and the politicized cultural and artistic or sports fandom. The mass has evolved from the concepts of nation, people, populace, and class to class and citizen since the late 1960s. In the 2000s, it further transitioned to citizen, multitude, and affective multitude. The politiciz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fandom began in the 1990s and accelerated in the 2000s, leading to the rise and growth of political fandom. Particularly since the 2000s, as the mass’s character increasingly values emotion and individual identity over reason and collective identity, political and politicized fandom has also grown to emphasize emotion and individualism. Modern Political fandom encompasses a variety of motivations and attitudes, but depending on the degree, it tends to more easily merge with certain types of the mass.

Key Words : mass, political fandom, political and politicized fandom, cultural and artistic fandom, multitude

• 논문투고일 : 2025년 6월 19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8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8월 11일

